“하화중생 자세로 국민 섬기겠습니다”

하정우 청불회장 취임법회 봉행
2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스님 등 200여 명 동참
“자비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청와대불자회는 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진은 법회 후 단체 기념 촬영 모습.

“국민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섬기며,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하화중생’의 자세로 공직에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청와대 불자회장에 공식 취임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청와대불자회(회장 하정우, 이하 청불회)는 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청불회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실 불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재이전되면서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39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의 헌등이 이어졌으며, 하정우 청불회장이 부처님 전에 꽃을 공양했다.

하정우 청불회장은 “불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청불회 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말로 취임소감을 밝혔다. 하 회장은 “그간 청불회는 청와대 내 공직자 불자들의 수행 공동체로서 회원들의 불심을 돈독히 하고 불교계와 정부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불회가 친목 모임을 넘어 수행과 나눔, 자비의 실천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하 회장은 이어 “저는 국가 미래 기술을 다루는 소임을 맡고 있지만,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궤를 같이 한다”며 “서로에게 도반이 돼 힘이 되어 주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청불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AI 문명 전환 시대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AI는 인간의 욕심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탐진치를 줄이는 지혜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완벽한 세상이 된다 해도 욕심이 지나치는 한 괴로움의 인과를 피할 수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최첨단 기술과 경제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괴로움을 줄여 가고, 국민의 마음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명상 대중화’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표 삼아 사회 소통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힘써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물론 청와대도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청불회장 취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축하했다.

특히 청불회 고문을 맡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행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 온 청불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강 실장은 “불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 낸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며 “청불회 역시 이러한 정신을 이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끝으로 청와대불자회는 강유정 부회장(청와대 대변인)이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하며 공정과 청렴을 근본으로 공익을 앞세우고, 약자의 눈물을 보듬는 따뜻한 공직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갈등은 화합으로, 근심은 평안으로 바뀌어 모든 중생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발원합니다.…오늘 마음 모아 세원 서원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안국선원, 명상마을 진흥에 10억원 ‘쾌척’

2월 12일, 진우 스님에 전달
명상마을 보수·증축 등에 사용



한국 간화선의 전통을 선양하고 불교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성된 문경세계명상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스님)이 통 큰 보시를 실천했다.

선원장 수불 스님과 안국선원 신도회 임원진은 2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문경세계명상마을 진흥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명상마을의 시설 수리·보수와 증축 등 원활한 운영 기반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명상마을 건립 초기부터 수불 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훌륭한 도량이 조성될 수 있었다”며 “아직 운영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기금을 통해 완성도 있게 회향하고 ‘세계명상마을’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주요 종책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종단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내영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 소청 심사 2월 20일에

2월 9일 예정 회의 돌연 연기
현우 · 석두 스님 자격 이상 없음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심사를 위한 회의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2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29차 회의를 열고 소청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심사 결정을 돌연 연기한 바 있다. 태성 스님은 “종단 내부에서도 선례가 없는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라며 “향후 판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섣불리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소청인 덕관 스님과 피소청인 성로 스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영국사 주지 현우 스님과 전 총무원 총무국장 석두 스님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종회의원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김내영 기자

‘선명상중앙본부’ 본격 시행…선명상 정책 일원화

프로그램 연구 · 지도자 양성 등
본부장에 미래본부 사무총장
운영위원장에 총무원장 당연직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국민 마음 평안에 기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운영 근거를 제도화했다. 이는 선명상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조계종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하고 선명상 사업을 총괄할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이하 선명상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열린 ‘불기 2570(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명상을 통해 국민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은 종단이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 온 중요한 결실”이라며 중앙과 지역 거점, 현장 밀착형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설치·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선명상본부는 △선명상본부 운영 △선명상 프로그램 연구·개발 △선명상 지도자 양성 및 교육 △선명상 관련 연구·학술 활동 지원 △국내외 선명상 단체·기관과의 교류 협력 △기타 선명상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조직은 선명상본부장과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본부장은 미래본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총무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종무위원과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주요 사업과 예산, 운영 내규 등을 심의한다.

또 선명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에는 미래본부 사무국장이 당연직 사무국장으로 참여한다.

선명상본부의 재정은 종단 예산과 희사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운영 전반은 종단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김내영 기자

천태종, 총무원 부장단 인사 단행

총무부장에 월도 스님 임명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대폭적인 총무원 부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은 2월 6일자로 총무원 총무부장에 월도 스님, 교무부장에 경혜 스님, 교육부장에 덕재 스님, 재무부장에 보광 스님, 사회부장에 진철 스님, 규정부장에 거홍 스님을 임명하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월도 스님은 전형위원회 위원에도 임명됐다.

월도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대성사·포항 황해사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다. 현재 경혜 스님은 분당 대광사 주지, 덕재 스님은 인천 황룡사 주지, 보광 스님은 서울 삼룡사 주지, 진철 스님은 서울 명락사 주지, 거홍 스님은 서울 성룡사 주지 등 소임을 맡아 종단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6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 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